

# '95년도 국내외 경제여건 전망

※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

세계경기는 선진국의 경기 회복 본격화와 개도국의 호경기 지속으로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호조세를 시현할 전망이다.

국제환율 동향을 보면, 엔화와 마르크화는 내년중 약세반전되어 우리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달러약세가 경제의 기본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일본의 경상수지도 내년에는 축소될 것으로 보여 엔화는 약세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마르크화도 달러화의 강세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세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유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대와 함께, 이라크의 원유수출 재개가 어려워지고 러시아의 생산차질이 예상되는 등 공급불안 요인도 있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

비원유 일차산품도 주요 선진국의 감산 및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공업용 원자재를 중심으로 상승세 지속이 예상되어 수입증대 및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수출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 〈세계경제 전망〉

(%)

	IMF			WEFA		
	93	94	95	93	94	95
세계전체	2.3	3.1	3.6	1.1	2.1	3.4
선진국	1.2	2.6	2.7	1.5	2.8	2.9
개도국	6.1	5.7	5.7	4.0	4.0	5.4

자료 : IMF(94. 9), WEFA(94. 10)

## 〈국제환율 전망〉

		1993	94. 1 ~9	WEFA		DRI	
				1994	1995	1994	1995
¥/US\$	평균	111.2	103.4	102.4	110.7	102.2	105.9
	기말	111.9	98.6	105.0	117.0	104.4	105.0
DM/US\$	평균	1.653	1.605	1.629	1.734	1.622	1.637
	기말	1.726	1.548	1.640	1.800	1.590	1.670

자료 : WEFA(94. 10), DRI(94. 9)

## 〈국제원유가 전망〉

(\$/Bbl)

		1993	1994	1995
OECD(94.6)	OECD 수입가	16.40	14.30	14.50
WEFA(94.7)	WTI	18.47	17.09	17.65

## 〈거시경제여건 전망〉

(%)

	실적		전망	
	1993	94. 상	1994	1995
국민총생산	5.6	8.5	8.0	7.3
민간 소비	5.7	7.2	7.4	7.3
고정 투자	3.6	10.3	9.4	7.9
설비	0.2	17.7	14.8	7.9
건설	5.8	5.3	5.9	7.6

주 : 전망은 각기관 종합

〈물가상승률 전망〉

(%)

		93. 1~10	1993	94. 1~10	94(전망)	95(전망)
소비자물가	전년 말 비	5.4	5.8	5.3	5.6	5.5
	평균 대비	4.6	4.8	6.3	6.2	4.6
생산자물가	전년 말 대비	1.7	2.0	3.3	3.5	3.1
	평균 대비	1.5	1.5	2.5	2.7	3.0

다.

국내성장률은 설비투자 증가세가 금년보다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여 금년의 8.0%에서 내년에는 7.3%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국내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 공공요금 현실화등 불안요인이 있어 금년에 이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금년보다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가 10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원화의 절상압력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경상수지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화의 절상을 억제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가. 원화절상 억제제의 필요성

과거 86~88년간 3저 등 해외요인에 의한 경상수지 흑자기에 우리 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흑자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급한 원화절상을

단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반전을 초래한 경험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구조와 500억달러에 달하는 총외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경상수지 적자의 규모가 아니라 적자 그 자체가 문제되고 있다.

향후 순 대외채무에 따른 투자수익수지의 적자와 함께 기술도입료 지급, 여행지급 등의 확대로 상당기간 동안 무역외수지의 적자가 불가피하므로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역수지가 다소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해외자본들은 국내직접투자 보다는 주로 주식시장 등 포트폴리오 투자가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자금들은 향후 기대수익률이 하락하거나 국내에 불안요인이 대두되면 언제라도 빠져 나갈 수 있는 자금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핫머니성의 자금유입에 의해 종합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여 원화가 절상되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않된다.

금년중 수출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여러 연구기관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우리 상품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엔고 등 대외여건에 힘입은 바가 크다. 또 수입면에서도 최근의 수입급증이 국내경기회복 뿐아니라 시장개방과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에도 크게 기인함을 주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수입중 소비재 수입이 10.6%에 그쳐 원화절상으로 소비재 가격의 직접적인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고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이 주로 유통단계에서 발생함에 따라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연계가 약해 원화절상으로 국내물가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독과점적 산업구조 및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시장지배력 차이 등으로 인해 원화가 절상되더라도 생산자가 가격인하에 소극적인 반면 소비자의 대항력이 불충분해 판매가격 인하로 반영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출과 내수를 겸하는 경우 원화의 절상으로 악화된 수출부문의 채산성을 내수판매 마진의 인상을 통

해 보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화절상의 물가안정 효과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으로부터의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은 경상수지 흑자 하에서 자국통화의 절상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절하를 유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선진국들도 환율이 경상수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원화환율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볼 때 원화는 9월 현재

2.3%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원화가 달러당 819.6원까지 절하되어야 한다. 또 무역협회가 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채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환율 수준으로 평균 810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은 선부른 원화절상으로 모처럼의 수출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대외여건의 호전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도록 원화환율을 안정

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강화해 원화절상 압력을 줄여나가고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따른 통화증발은 통화안정채권 발행 및 재정수지 흑자를 통해 흡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외자본 유입이 급증하는 근본원인이 국내의 고금리에 있으며 이는 또한 생산비 상승의 주요인이기도 하므로 조속히 국내금리의 적정수준 인하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휴식공간

코닥포토살롱 사진전 일정

전시회명	기간	장소	내용
백제 예술전문대학 졸업전	'95. 1. 11~1. 17	코닥포토살롱 (Tel:708-5508~9)	백제예전 사진학과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이번 졸업전을 통해 선보이고자 한다.
경원전문대학 사진영상과 정기전	1. 18~1. 24	"	경원전문대 사진영상과 학생들이 보인 빛들 회원들이 한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랑을 사진 애호가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장석균 개인전 -수레바퀴 밑에서-	1. 25~1. 31	"	산업, 경제, 정치의 요충지인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 내고자 한다.